

16/10/23(주) 주일예배 / 제목 : 인침 받은 144,000명의 정체(계7:1~17) p. 406

(1)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5)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갓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6)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7) 시므온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잇사갈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8) 스블론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일만 이천이라

(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3)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침 받은 144,000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3종류의 재앙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일곱 인봉**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일곱 나팔**, 세 번째는 **일곱 대접**에 대한 환상입니다. 앞에 있는 6장에서 이 첫 번째 심판, 일곱 인에 대한 말씀이 시작됐는데 6장에서는 여섯 째 인까지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일곱 째 인에 대한 말씀은 8장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7장은 여섯 째 재앙과 일곱 째 재앙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7장 말씀은 6장 마지막 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 4장과 5장처럼 다시 하늘의 광경이 나타납니다. 6:17에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7장은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7장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144,000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144,000 명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를 살펴보고 이들은 실제 수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수인지, 그리고 144,000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무리인지 아니면 다른 무리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론 / 7장의 내용들 - 인침 받음 144,000 명의 정체

1. 여섯째 인으로 일어난 사건 후에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이였는가?

1절을 보십시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땅의 사방은 온 세상을 말하며 바람을 붙잡는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 분다는 것은 그 재앙의 범위가 전 세계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나무에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맞을 때까지 지상에서 악의 세력을 저지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2. 다른 천사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이라 말하였는가?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2~3절)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절에서는 바람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도장(인)을 가지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옛부터 노예나 가족에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화인을 찍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이마에 잔혹하게 화인을 친다는 것이 아니라, 눈에 잘 띄도록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에스겔서 9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마에 표를 그리라’ 또는 ‘이마에 표 있는 자’ 라는 말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지만, 이마에 표 있는 자, 인침을 받은 사람은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본문에서도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누구도 능히 그 심판 앞에 설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인 맞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6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이 산들과 바위에 깔려 죽기를 원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얼마나 복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소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7장의 말씀 없이 6장 17절에서 8장 1절 말씀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말씀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런 점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6장과 8장 사이에 삽입된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이 미혹되지 말고 담대하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분명히 붙들어야 할 믿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택하셨고, 그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 것이라고 인을 치셨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3. 인 맞은 자들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4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4~8절)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갓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잇사갈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스불론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라”

4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을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4,000명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4절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그 사람들이라며 우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는 74억의 인구들 가운데서 고작 144,0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수는 택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는 택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을 받을 십사만 사천 명이 실제의 수인지 혹은 상징수인지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실제와 상징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는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까지 고려해가며 보아야 그 말씀이 상징인지 실제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다른 책에 비해서 관점의 차이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서 더 어려운 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터부시 하고 계시록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 십사만 사천 명이 문자적으로 실제의 수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사만 사천 명을 실제적 수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4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구원받을 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구원의 성격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그리

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하나님 편에서 수를 제한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로, 십사만 사천 명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2지파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십사만 사천 명이 실제적인 수라고 믿으면 현재 살아 있는 지구의 인구수에 비해 그 수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 제한된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강박 관념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각종 이단들이 이 숫자 속에 들어가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십사만 사천 명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제한된 수이며 특별한 무리라면 하늘에는 십사만 사천으로서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하나의 계급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십사만 사천 명을 실제적인 수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택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4. 요한이 본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인가?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9~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요한은 보좌 앞에 서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승리와 구원의 표상인 종려가지를 들고 있었으며 큰 소리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찬송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사가 ‘비전’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성경구절에서 나왔습니다. 비전의 가사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그러면 이 큰 무리들은 누구인가요? 그들이 십사만 사천 명과 같은 무리인가 아니면 다른 무리인가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논쟁이 있어왔지만 성경을 근거로 몇 가지를 추측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직전에 “십사만 사천”이라고 들은 “셀 수 있는” 인 맞은 무리를 바로 다음 장면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십사만 사천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서로 다른 무리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십사만 사천 명”은 재림 직전에 살아서 하나님의 인을 맞고 재림을 맞이하는 상징적인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십사만 사천 명”을 포함하여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체적인 무리를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사만 사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

는 서로 같으나 다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확실히 알 수 없는 “십사만 사천”같은 문제로 자기의 해석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5. 누가 그 노래에 화답했으며 그 노래의 주제는 무엇이었는가?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11~12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모습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부르는 장엄한 찬송에 모든 천사들도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인데 아멘으로 시작하여 아멘으로 끝납니다. 결국 이번 찬송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주제입니다.

6. 흰 옷 입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13~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장면은 요한이 흰 옷을 입은 무수한 무리를 보면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장로 중의 하나가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확실히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흰 옷 입은 자”들에 대한 설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은 그들의 옷을 어린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큰 환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을 십사만 사천과 같은 사람들로 생각한다면 십사만 사천이 살아서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니만큼, 이 환난은 재림 직전에 있을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을 말합니다. 그러나 흰 옷을 입은 무수한 무리를 창세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로 생각하면 이 환난도 각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던 모든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옷을 어린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것은 흰 옷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흰 옷은 성경에서 의로움과 순결의 상징이며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어린양의 피로 씻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 그들은 하늘에서 어떻게 사는가?

15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15~17절) “(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길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린양의 피가 그들을 그렇게 높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치시고 그들을 한낮의 뜨거운 것과 목마름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이들은 다시는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뜨거운 것들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살 때에 굶주림과 갈증과 뜨거운 태양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생명수 샘가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슬픔과 눈물도 영원히 끝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늘나라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지극히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받은 우리들도 장차 주님의 재림 때에 천국에서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진정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핵심 :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요약정리 / 7장의 내용들 - 인침 받음 144,000 명의 정체

1. 여섯째 인으로 일어난 사건 후에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이였는가?
2. 다른 천사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이라 말하였는가?
3. 인 맞은 자들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4. 요한이 본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인가?
5. 누가 그 노래에 화답했으며 그 노래의 주제는 무엇이였는가?
6. 흰 옷 입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7. 그들은 하늘에서 어떻게 사는가?